3. 29(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최명진 과장(044-204-7950), 이기택 사무관(7952)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 시상자 발표

-대상[국무총리상] 2팀, 최우수상[각 부처 장관상] 총 8팀 등 시상-

□ 경진대회 대상(국무총리상) 수상자로 "㈜나누"와 "㈜대영마켓" 선정

□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기술의 공동 개발자, 대학창업팀, 사내벤처 등 공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청년기술창업기업 발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9일(화), 프론트원(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의 결선 및 시상식에서 대상에 "㈜나누"와 "㈜대영마켓"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 개요 >

○ **(일시·장소)** '22.3.29.(화) 10:30~15:40, 프론트원 박병원홀(5F)
  * (결선) 10:30~14:30 (시상식) 15:00~15:40

○ **(주최)** 중기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조실, 특허청

○ **(주관)** 창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석)** 국무총리, 결선진출 15팀, 과기부·산업부 장관, 중기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창업진흥원장,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평가위원 7인 등

○ **(시상)** 총리상 2팀, 장관상 8팀(특허청 제외 주최별 2팀), 주관기관장상 5팀

대상상을 수상한 "㈜나누"의 이윤노 대표(90년생)는 공공기술 "펄프몰드의 국부적으로 기능성을 부여하는 복합 방식의 코팅 장치 및 코팅방법"을 활용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펄프 몰드 개발"에 대한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나누”는 창업 1년차 기업으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기술이전을 완료하여 사업화를 진행 중이며, 팀원 중 충남대학교 교수 출신의 기술 공동 발명자와 함께 창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나누와 함께 대상을 수상한 “㈜대영마켓”의 이동일 대표(85년생)는 공공기술 “혼합형식(하이브리드식) 태양 추적장치를 이용한 헬리오지능형(스타트) 제어 장치 및 방법”을 활용하여 “초음파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지능형(스마트) 조류 퇴치기”의 활용도를 높인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대영마켓은 해당 공공기술 공동발명자인 이동일 대표를 포함한 카이스트 박사 3인 등으로 팀을 이루어 경진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구분	훈 격	시상규모	상금	수상팀
대상	국무총리상	2팀	각 5천만원	㈜나누, ㈜대영마켓
최우수상	중기부장관상	각 2팀 (총 8팀)	각 3천만원	㈜에피젠, 딥아이
	과기정통부 장관상			㈜모바휠, ㈜에스비바이오사이언스
	산업부 장관상			㈜코스모스랩, ㈜테라블록
	국무조정실장상			㈜파크웨이브, 펫페오톡㈜
장려상	창업진흥원장상	5팀	-	㈜오후랩스, ㈜옵트에이아이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장상			㈜팀모노리스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장상			㈜폴라리스알에프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이사장상			단추누리
합계		**총 15팀**	**총 3억4천만원**	-

8팀에게는 경진대회를 주최한 부처별 장관상이 수여되었으며,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딥아이의 김기수 대표(91년생)는 결선에 진출한 2팀의 예비창업자 중 한 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사내벤처로 출범하여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중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캠락형 증기발생기 검사용 경량로봇’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비파괴

검사 솔루션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에스비바이오사이언스”의 염규호 대표(88년생)는 공공기술 “면역 검출용 접합체 및 이를 사용한 면역 검출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진단 도구(키트) 대비 뛰어난 정확도 보유한 “압타머와 단백질 공학기술을 이용한 고감도 자가진단도구(키트) 기술”의 활용한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에스비바이오사이언스는 대표와 팀원 2인 모두 기술 공동 발명자이자 광주과학기술원 출신으로 현재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남은 5팀에 대해서도 격려 차원에서 경진대회를 주관한 창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장려상을 시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의 평가위원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지주의 강훈 대표는 “청년창업자들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에스지(ESG), 기반(인프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화를 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청년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의 기술과 청년의 아이디어가 결합한 청년기술창업 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중기부는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청년들이 후속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청년창업 열기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이기택 사무관 (☎044-204-79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